



대한진단유전학회 2020년도 제15차 학술대회
- 비대면 라이브(Live) 생중계 온라인 개최 -

- 대한진단유전학회(회장 전창호)는 8월 28일(금)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사회자, 연자, 좌장만 참석한 가운데,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라이브(Live) 생중계로 온라인으로는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.
- 전창호 대한진단유전학회장은 개회사에서 “매우 어려운 시기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, 5월말에 정기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번이나 미루게 되었고 새로운 학문에 정진할 것을 게을리 할 수 없었기에 온라인으로 개최 준비하게 되었다.” 고 첫 포문을 열었다. 덧붙여 이번 학술대회는 “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공유하고 나날이 변화하는 분자진단 시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, 앞으로도 본 학회는 좋은 강좌와 증례를 마련하여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대한진단유전학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.” 고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.



- 온라인으로 참여한 회원 수는 총 350명 등록하였으며,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대한 의사협회 평점(6점)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평점(1점) 및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책임전문 의 평점(1점)이 부여되며,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행사당일 참석한 시간만 평점이 인정된다.
-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세션마다 참가자가 실시간 댓글로 질의 하고, 전문가들의 강연발표가 끝나고 실시간 댓글로 Q&A가 활발히 이뤄졌다.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안배가 중요하였는데, 발표자로 참석해주신 연자님들께서 제시간에 도착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라이브 생중계가 진행되었다.
-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는 Covid-19관련 특강, Symposium세션, Industry Workshop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, Exosome 기본응용, 임상 유전학 및 유전체학의 최신동향,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(NGS) 기술 발전과 임상적용, 유전성 질환 치료의 현재와 미래 등과 같이 진단 분야에 접목과 활용을 모색하고자, 응용에 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었다.
- 특히 이번 하이라이트인 코비드-19 특강에서는 전창호 회장을 좌장으로 ▲ COVID-19의 역학 및 임상 양상(이혁민,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의학과 교수) ▲ COVID-19의 진단검사(홍기호,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) ▲COVID-19 변이 분석(성문우,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)의 특강을 특별히 마련하였다.



- 유관학회 및 참가회원들은 녹화방송이 아닌 라이브 생중계에 대해 우려했지만,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, 주제와 강의도 훌륭해 만족스러웠다고 전달받았다.
- 대한진단유전학회(회장 전창호)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진행을 위해 만만의 준비로 노력하였다. 또한, 홈페이지 온라인 구축과 마이페이지 회원의 정보변경 및 결제관리, 증명서 발급 신청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힘썼다.
- 라이브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 강연내용은 대한진단유전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(ksgd2020.org)에서 한달간(4주) 재방기간을 통해 참가 회원들에게 영상물을 제공한다.